

# 대본소 이어 서점가에도 출사표 던지다

## 서점용 단행본 무협지 독자들에 큰 인기... 국내창작물 부족해 아쉬움

강호의 협객들이 비장의 권법과 검법으로 협투를 벌인다. 장풍으로 천지가 뒤흔들리고 악은 응징당한다. 이런 장면을 어김없이 연출하는 것이 무협소설이다. 70년대에 김광주씨가 「한국일보」에 「비호」를 연재하면서 중국대 무협소설은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작품이 출간된 작가인 와룡생의 「비룡」 「비연」 시리즈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고, 대본소에 배포된 그의 작품은 당시에 무려 1천여종이 넘었다고 한다. 물론 그의 이름만 도용한 해적판이 적지 않았지만, 군사적이고 패도적인 면이 없는 와룡생 특유의 작품을 흠집없이 모방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진위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와룡생과는 달리 무공이 강하고 다양한 검법의 초식을 보여 주는 주인공을 내세우는 진청운의 「비검협투」 같은 작품이 대본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어 이전의 작품들보다 훨씬 재미가 강조된 고통의 무협소설들이 화제가 되었다. 휴머니티가 강한 작품세계를 보여준 고통과 쌍벽을 이뤘던 작가는 김용.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국내 무협독자들의 애독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의 원작을 번역한 무협소설은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었고, 따라서 국내 작가들의 창작 무협소설들이 중국식의 필명을 달고 등장하기 시작했다.

### 80년대 중반 대본소서 서점으로 진출

사마달, 금강, 서효원 등 우리 무협소설계의 '대가'들이 '무림'에 출사표를 던지고 대본소에서 중국의 '고수'들과 접점을 벌인 끝에 무협소설은 대본소에서 서점으로 진출했고, 현재는 10여개사가 수십종씩의 단행본을 출판해 짝짝한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효시는 80년대 중반 고려원이 김용의 「소설 영웅문」을 서점판매용으로 내놓으면서다. 그것은 갱지에 세로조판으로 인쇄된 조잡한 편집이 연상되는 무협지가 보통의 일반 단행본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 것에 독자들이 호감을 가지면서 무협지도 서점에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고려원의 무협지 서점 진출과 비슷한 시기에 무협지 전문출판사로 대규모의 대본소 영업망을 갖고 있던 대망출판사가 서점 영업을 시도했으나, 대본소와는 다른 서점의 영업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도중하차하고 말

### 80년대 중반부터 대본소 전용에서

탈피한 무협소설들이 서점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로

중국 원전의 번역물로 이미

대본소에서 인기를 끌었던 '고전'

이어서 "작품성에서는 하자

없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는

국내 창작 무협소설도 단행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았다.

현재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협소설은 우선 중국물의 번역본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고전'에 속하는 것으로, 70년대 무렵 출판돼 유행했던 작품들이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와룡생, 고통, 김용의 작품이 태반이 넘는다. 따라서 작품의 성향도 이들 작가의 독특한 작품에 의해 큰 줄기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무공이 출중한 영웅호걸이 주인공을 맡아 속 시원한 한판을 보여주는가 하면, 치밀한 구성에 의해 반전이 설득 없이 반복되기도 한다. 또 이야기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어 작가의 서술기교가 뛰어난 작품도 있다.

먼저 「소설 청향비」(전4권, 고려원)는 유명작가 김용의 것으로, 건륭황제의 천산정복과 청나라 황실을 둘러싼 권력의 암투 등이 그려진 작품. 만청정부가 위구르족을 정복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과 위구르족 추장 목탁륜의 두 딸이 진가락을 사랑하는 이야기 등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소설 영웅문」(고려원)에 이어 나온 작품으로 원제는 「서검은구록」 또는 「서검강산」이라 불리는데, 단국대 중문과 성선제교수는 서문에서 김용의 작품세계를 "수호전을 능가하는 개성이 강한 인물물 등장시키고, 구도·배치 등이 탁월한 구성력과 미문이 돋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극찬한다.

### 와룡생·김용·고룡이 단연 수위 차지

사실 작가 김용은 중국문단의 기인으로, 유가와 노자·장자철학에 능통할 뿐 아니라 불경에도 심취했던 박학함으로 스케일이 웅장한 작품을 보여준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국역사소설로 분류된 무협지들이 서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홍콩·대만 등지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김용의 작품으로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앞서 예로 들은 「소설 청향비」 「소설 영웅문」 외에도 「녹정기」 「동방불패」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용의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설 영웅문」은 총 5부 각부 6권으로 된 대작으로, 스케일이 큰 그답게 중원을 중심으로 몽고·페르시아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징기스칸과 쿠빌라이·주원장 등의 호걸과 빼어난 미희들이 이야기를 끌어간다. 역사적으로도 남송과 원·명에 이르는 대륙의 흥망을 다룬다는 점이 김용의 특색 있는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김용에 비견되는 고통의 작품으로는 「애마애진」과 「절대쌍교」 등이 나와 있다. 원제가 「무림외사」인 「애마애진」(전7권, 독서당)은 60년대에 등장한 작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데, 무공의 초식이나 처절한 결투장면의 반복에서 벗어나 "신묘한 술책과 계략을 추리기법을 응용해 전개한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영화로도 소개된 바 있는 「절대쌍교」(전8권, 독서당) 또한 천하제일의 풍류공자 강풍을 애모하는 이화궁의 두 궁주가 자신들의 사랑이 빛나가자 강풍을 살해하고 그의 쌍둥이 아들들을 해치려는 악독한 모략을 꾸민다는 줄거리로 짜여진 소설인데, 역시 끊임없는 계책이 이어진다. 「절대쌍교」와 함께 영화로 더욱 유명한 「소설 황비홍」(오광운, 늘푸름)도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 무협지 붐을 일게 한 장본인인 와룡생의 작품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대강 훑어봐도 「천애기」 「생사교」 「고검기」 「석불기」 「금검지」 「불야성」 등이

여러 출판사를 통해 출판돼 있어 그의 명성을 짐작케 한다.

### "국내 창작 무협소설도 서점용에 추가돼야"

중국 원전의 번역본이 주름잡고 있는 서점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은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무협소설가 서효원씨의 「대자객교」(전3권, 서울창작)를 들 수 있다. 「실명대협」 등 화제작을 수없이 펴낸 바 있는 서효원씨는 생전에 128편의 소설로 1천여권의 책을 출판하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역시 무협소설가인 사마달씨는 "서효원의 작품은 냉혹무비함과 격렬한 정사장면, 무궁무진한 무공의 결집"이라고 평한다. 무협소설계에서는 3대 대가로 일컬어지는 서효원씨의 유고집 「나는 죽어서도 새가 되지 못한다」(서울창작)도 그의 무협지 만큼이나 잘 팔리고 있다.

국내 무협지 현역작가들은 서점에 나와 있는 무협소설을 "이미 독자들로부터 평가를 얻어낸 고전들이라 일단은 수준작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내 창작무협도 독자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한다. 다시말해 실패할 우려가 적은 원전 번역본만을 출판하는 안일함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주장에는 우리 정서에 적합한 무협물을 독자들에게 읽혀야 한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의 주인공이 중국과 만주벌판 등을 배경으로 무공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어 새로운 역사무협소설이 하나의 장르로 제자리를 굳힐 것이 예상된다.

—최태원 기자